

문화광장



노미경
한국스토리텔링작가협회 제주지부장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웅이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어떤 인물이 영웅인가라는 기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과거에는 확고한 영웅이었다가도 시대가 따라 이미지가 격하되거나 시간이 지나 또다시 재 격상되기도 하는 것이 시대별 영웅상이다.

이 시대의 영웅은 어떤 사람인가?

기백은 찬연하게 빛을 발산하나 파멸, 고뇌, 비참한 죽음을 또한 그 영웅의 찬란한 업적이 된다. 중국 여전사 화복란(花木蘭), 영화 속 '몰란'은 감동적이다. 연로한 아버지를 대신해 남장을 하고 북방 이민족과의 전쟁에 참가해 나라를 구했다는 중국판 잔다르크 영웅서사이다. 6세기 경 북조 시대의 서사시인 '목란사(木蘭辭)'에 처음 등장하며 몰란은 고대 중국의 대표적인 여성 영웅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나감에 스스로 남성 중심의 사회에 편입됨으로써 전통적인 가치관을 거부했다. 남자들이 독같이 훈련받고 자신의 능력으로 곤경에 처한 부대를 구하고 황제를 구출하는 등 지적 능력을 발휘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끈 독립심과 자의식이 강한 여성이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달프고 목숨을 내건 전쟁이었을 것으로 짐작하지만 가문을 일으키고 사랑도 얻게

되었다면 이 정도면 정말 영웅이 아닌가. 디즈니의 여성 영웅 캐릭터의 변화가 왔다. 수동적인 묘사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 '몰란', 동양을 배경으로 시도한 최초의 여성 영웅 캐릭터이다. 나는 스파르타다!! "영예를 향해... 영광을 향해..."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을 배경으로 그리스의 도시국가 스파르타가 페르시아 군대에 맞서 싸우는 역사적 팩트가 작품의 주요한 모티브다. 하지만, 작품은 전쟁이 지나는 의미나 국가 간 역할관계 등 거시적 관점보다는 전쟁에 참여했던 전사들과 특히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의 전설적인 영웅의 웅맹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전쟁이 주는 피해함이나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이들의 희생정신과 같은 의미보다는 영웅으로 명명될 수 있는 전사들의 웅맹스

러움을 펼쳐보았다. 레오니다스 한 명으로부터 시작된 스파르타는 삼백 명의 전사 모두가 각각 스파르타가 되고 그들이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다시 전설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영웅은 전투 참여로 시작하여 최후 처참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전설이 되는 주인공의 모습이 묘사된 스파르타의 영웅 300은 영화 속 시나리오를 통해 다시 한 번 만나게 된다. 우리는 늘 갈망한다. 누군가 국가를 위해 통쾌한 승리를 보여주기 바라며 현재의 영웅을 찾고 있는 듯하다. 현재 떠오르는 그 위대한 영웅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정의로 움 속에 파장이 생기고 그 파장 속에 영웅은 항상 솟는 법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강용도 효용도 적절하게 잘 나타나면 되지 않을까? 이제 하나의 목소리를 가진 전쟁이 새로운 영웅을 낳을 것이다.

열린마당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 '청렴'



신민호
서귀포시 효동동주민센터

현대사회의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우리들은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서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웹이라는 가상공간이 실제적 공간과의 경계를 허물었다. 현실은 곧 인터넷의 배경이며 인터넷은 더 실제적인 현실이 됐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이다. 바로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반대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검색어. 과거 데스크톱의 관심은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 이러한 경향은 그 대상을 넓게 바꾸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의 폭이 우리의 발

밑까지 내려온 시점에서 성숙하지 못한 과거의 일로 현재를 망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비유명인의 경우 기억되기 쉬운 조건으로 임박하여 오른다. 직업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관념화되기 좋은 조건이다. 데스크톱에서 공무원과 같은 직업은 놀라울 정도로 일반화 되는 경우가 많다.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회에서 직업의 이미지는 보통의 다수보다 몇몇 소수의 행동으로 좌우되기 쉽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를 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실수 자체를 비난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우리는 물론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 행위의 동기를 무시할 만큼 삭막하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무리할까를 더 고민해야 한다. 자기 합리화가 아닌 세상이 멋있는 마음. 그것이 이 습길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그늘막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이석문 교육감 교육계 변화 예고

수능 중심 평가시스템 바뀌어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학생들이 달나라에 토끼가 산다고 말했다" "그게 사과인가"라고 지적. 그러면서 "그 글이 역사로 남을까 봐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정치인으로서 판단하겠다"고 한마디. 이소진 기자
자화장에서 "사과할때 잘못 알았다"고 했다면 넘어갔을 텐데 '방송보도가 사실로 증명 안됐다' 정도였다. "그게 사과인가"라고 지적. 그러면서 "그 글이 역사로 남을까 봐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정치인으로서 판단하겠다"고 한마디. 이소진 기자

시민원탁회의 참가자 모집
○...제주시가 제3회 시민원탁회의 토론참가자 100여명을 공개모집해 눈길. 시민원탁회의는 시정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추진하는 소통 회의로 이달 5일부터 8월 2일까지 4주간 모집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란으로 온라인했다며 사과한 가운데 원회통 제주도지사가 '정치플레이'라고 힐난. 원 지사는 1일 민선 7기 1년 기

사설

4·3특별법 개정, 더이상 미뤄선 안된다

제주4·3 유족들의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바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1년 반이 넘었으나 전혀 진전이 안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때문에 4·3유족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4·3유족들이 상복을 차려입고 국회를 찾아 실행행사에 나섰습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달 28일 국회 정문 앞에서 유족과 관련 단체 회원 2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4·3특별법 개정안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상복을 입은 유족들은 '제주도의 간절한 염원이다. 4·3특별법을 개정하라'는 등의 종이파켓을 들고 국회를 성토했습니다. 2017년 12월 오영훈 국회의원외 4·3특별법 개정안을 1년 6개월째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4·3은 잘못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양민이 무고하

게 희생됐습니다. 아무런 영문도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바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1년 반이 넘었으나 전혀 진전이 안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때문에 4·3유족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4·3유족들이 상복을 차려입고 국회를 찾아 실행행사에 나섰습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달 28일 국회 정문 앞에서 유족과 관련 단체 회원 2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4·3특별법 개정안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상복을 입은 유족들은 '제주도의 간절한 염원이다. 4·3특별법을 개정하라'는 등의 종이파켓을 들고 국회를 성토했습니다. 2017년 12월 오영훈 국회의원외 4·3특별법 개정안을 1년 6개월째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4·3은 잘못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양민이 무고하

제주헬스케어타운 활성화 대책 내놔야

공사 중단과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취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사업자인 중국 녹지그룹이 해외 첫 투자프로젝트사업으로 강한 정상화 의지를 밝히며 지금까지 밀렸던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부동산개발회사인 녹지그룹은 서귀포시 토평동과 동흥동 일원 153만9013㎡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과 웰빙 푸드존, 의료 연구개발 센터 등을 갖춘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공사를 시작해 콘도미니엄과 병원건물 등은 완공했으나 공사비를 제때 지불하지 못해 나머지 사업은 지난해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녹지그룹측은 최근 제주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의 협의에서 미지급 공사비를 오는 8월까지 모두 상환하기로 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주헬스케어타운은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취소되면서 의료·R&D가 아우러진 의료복합단지라는 당초 조성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주주민들도 당초 계획대로 단지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토지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제주자치도 차원의 공립의료기관의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재원부담이 만만치 않아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주자치도와 JDC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건물 활용방안과 함께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취지에 걸맞는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내놔야 할 때입니다. 다시한번 제주자치도와 JDC의 적극적인 분발을 요구합니다.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 명: 방 문귀문(1971. 12. 20생)
*리 후주소: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900(동흥동)
상기자는 2019년 6월 28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19년 6월 28일 제주지방법원 2019년 단35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계분 판매합니다. (배달 가능)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받은 자연건조한 계분(산란계)판매
전 화 : 064-796-6947
핸드폰 : 010-3699-3344
신일농장, 제주팜
(주소 : 제주시 한림읍 명상로106-7)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evworld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1544-8236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적용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